눈 두는 곳마다 '나'를 본다

바람도 머문 곳, 암자

④ 전남 곡성 천태암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 wanihollo@hanmail.net

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'나를 찾아내는 것' 이다. 하지만 그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동분서주하고 있다. 찾아야하는 '나' , 그것은 힘겨운 시간 속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진다.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, 목탁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, 풍경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한다. 숲길 끝에, 산자락 끝에, 물가의 끝에 서는 것이다. '끝' 에 서보는 것이다. 끝에 서서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'나' 를 보고 싶은 것이다.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곳에서, 더 이상의 생각이 필요 없는 곳에서 오직 '나' 를 찾는 길을 걷는 것이다. 힘겨움 속에 있는 이 시간, 어딘가의 끝에 서고 싶다면 눈 두는 곳마다 '나' 가 시작되는 곳, 아미산 천태암으로 간다. B2면에 계속



INSIDE

B3 박지산의 정진의 길, 시코쿠를 걷다
대사당 노숙의 기본 자세

B4 책세상
혜담 스님의 〈진리란 무엇인가?〉

B5 문화
국립공주박물관 '마곡사, 어제와 오늘' 展

B6 학술
"김천 수도암비, 신라 명필 김생이 썼다"